

형태 분석 코퍼스에 기반한 번역문의 높임 표현 연구*

김 혜 영
(고려대)

1. 서론

본고는 형태 분석 비교 코퍼스¹⁾를 토대로 국어 번역문과 비번역문을 비교함으로써 번역문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특성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사용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한국어로 번역된 텍스트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오역을 비롯하여 통사적인 측면에서 우리말 어법에 맞지 않는 번역투를 지적하거나 번역문을 텍스트 언어 이론의 방법론으로 분석하는 것이었다.

* 이 논문은 2단계 BK2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의 지원비를 받았음.

1) 형태 분석 코퍼스란 각 형태에 적절한 주석을 붙인 코퍼스를 말한다. 본 연구의 형태 분석은 21세기 세종계획 기초자료분과의 형태 분석 코퍼스에 사용된 기준을 따라 각 형태에 해당 품사의 표지(tag)를 부착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비교 코퍼스(Comparable Corpus)는 1개 언어로 된 2개의 단일 코퍼스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번역 코퍼스이며, 다른 하나는 비번역 코퍼스이다. 텍스트 장르, 주제, 시간 범위 등에서 유사한 설계 기준이 전제 조건이다.(안동환, 55)

그러나 번역문의 텍스트 분석이나 소위 번역투라는 표현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논의는 그 자료가 일부 번역문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일부 번역문만을 대상으로 그 언어적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할 경우, 그 결과는 해당 텍스트와 번역자의 문제로 간주될 수 있어 모든 번역 텍스트의 문제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번역문과 비번역문 각각에 대해 대규모의 코퍼스를 구축하여 이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규모의 비교 코퍼스를 이용하여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언어 사용 양상을 비교하면 번역문의 언어적 특성을 일반화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번역문과 비번역문의 언어 사용 양상을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텍스트 자료가 필수적이며, 언어학적 분석을 위해서는 적절한 주석이 포함된 코퍼스가 전제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에 출판된 서적을 대상으로 번역문과 비번역문 각각 100만 어절 분량의 형태 분석 균형 코퍼스²⁾를 구축하였다³⁾. 비교 대상이 되는 비번역문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코퍼스⁴⁾ 가운데 1990년대 이후의 출판 서적 텍스트 파일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문 코퍼스와 텍스트 유형별 균형을 맞추어 100만 어절의 규모로 재구성한 것이다. 번역문 코퍼스는 국립국어원에서 소장한 원시 코퍼스⁵⁾ 자료를 입수하여 띄어쓰기나 맞춤법 등의 오류가 비교적 적고 상태가 양호한 파일을 대상으로 1990년대 이후에 출판된 106편의 번역문⁶⁾을 골라서 100만 어절의 균형 코퍼스

- 2) 균형 코퍼스는 전반적인 언어 사용 양상을 고루 반영하기 위해 장르, 혹은 텍스트 유형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일정한 비율을 맞추어 구성된 코퍼스를 말한다.
- 3) 분석 대상 코퍼스 목록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 4) 21세기 세종계획에서는 1,500만 어절 이상의 형태 분석 코퍼스를 구축하고 배포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에서는 ‘코퍼스’ 대신 ‘말뭉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본고에서는 ‘코퍼스’라는 용어로 통일하였다. ‘코퍼스(corpus)’는 아직 번역 술어가 통일되지 않고 학자에 따라 ‘말뭉치’나 ‘말모듬’으로 번역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정광의 ‘말모듬’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말모듬’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코퍼스’와 ‘말뭉치’만 등재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코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 5) 원시 코퍼스(raw corpus)는 원전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입력한 텍스트 파일 자료이다. 서지 정보를 입력한 헤더(header)와 본문(text)으로 구성되어 있다.
- 6) 출발어는 영어를 기본으로 하였다. 번역 대상 원문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출발어에

로 정제하였다.

번역문 코퍼스와 비번역문 코퍼스의 분야별 비율은 번역 출판 현황과 일반 언어 생활의 분야별 비중을 고려해서 각각 문학 텍스트 30%, 일반교양 텍스트 30%, 전문 텍스트 30%(인문사회 텍스트 15%, 자연과학 텍스트 15%), 아동 텍스트 10%로 구성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코퍼스도 분야별 비율을 고려한 균형 코퍼스이긴 하지만, 텍스트 장르가 지나치게 세분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신문·잡지의 비율이 50%에 육박한다. 본고는 출판 서적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코퍼스의 분야별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텍스트의 유형을 문학 텍스트, 일반교양 텍스트, 전문 텍스트, 아동 텍스트의 4가지 유형으로 단순화하였다. 텍스트 유형별 비율은 달리 적용할 수 있지만, 비번역문 코퍼스와 번역문 코퍼스의 각 텍스트 유형별 비율은 동일해야 텍스트 유형의 차이에 따른 변인을 통제할 수 있다. 전문 텍스트 유형을 포함한 사실적 유형의 텍스트에는 대화문이 많은 문학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임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적 텍스트 유형에서도 필자가 독자를 상대로 하는 문체에서 높임법이 일부 나타나고, 사실적 텍스트 유형 가운데 일반교양 텍스트는 전문 텍스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용문이 더 많이 삽입되어 있어 높임 표현 또한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높임 표현의 양적 측면에서 유사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삼기 위해 비번역문과 번역문 간에 텍스트 유형별 비율을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비번역문 코퍼스는 21세기 세종계획에서 이미 품사 표지를 부착한 형태 분석 코퍼스이므로 번역문 원시 코퍼스를 비번역문 형태 분석 코퍼스의 형태 분석 기준에 맞추어 형태 분석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코퍼스가 자동 형태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형태 분석한 다음에 수동적 방법으로 일부 오류를 수정하는 후처리를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도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 분석 코퍼스에 사용한 자동 태거를 이용하여 100만 어절의 번역문 원시 균형 코퍼스를 형태 분석한 다음, 21세기 세종계획 형태 분석 코퍼스의 형태 분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의 어려움이 있어 저자명으로 판단하되, 중국어와 일본어는 기본적인 언어 구조가 영어와 다르기 때문에 출발어가 중국어와 일본어로 추정되는 텍스트는 제외하였다.

석 기준에 맞추어 수동적 방법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후처리 작업을 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외에도 다음 두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서남희 옮김. 2006.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퍼주: 문학동네.

서미석 옮김. 2005. 『영국 옛이야기』. 고양: 현대지성사.

높임 표현은 주로 대화문에 쓰이기 때문에 대화문이 많은 문학 텍스트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와 『영국 옛이야기』를 선택했다. 이 두 번역서의 번역자들은 2000년대에 들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번역가로서, 각각 수십 편의 번역서를 낸 전문 번역가이며, 이들이 번역한 소설과 아동 텍스트는 높임 표현의 담화·화용론적 측면에서 좋은 분석 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을 추가 자료로 선정한 이유는 코퍼스 자료에 포함된 텍스트의 원문을 모두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본고의 논의 가운데 원문과의 비교가 필요한 부분에서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들 자료는 번역문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분석하는 3장에서 언급된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형태 분석 코퍼스에서 추출한 형태별 빈도의 통계에 근거하여 비번역문에 비해 번역문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의 특징을 밝힌다. 3장에서는 2장에서 높임 표현과 관련한 번역문의 특징으로 언급하는 상대 높임의 화계와 지시 표현이 구체적으로 번역문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높임 표현의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핀다. 4장에서는 2장과 3장의 논의를 정리하고 본고의 한계와 남은 과제를 제안한다.

2. 번역문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의 특징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문법 기능을 높임법이라 한다. 한국어는 높임법이 발달한 언어다. 높임법은 실현 방법에 따라 선어말어미, 종결어미, 조사를 통해 실현되는 문법적 높임법과 어휘를 통해 실현되는 어휘적 높임법으로 분류된다. 본 장에서는 문법적 높임법과 어휘적 높임법으로

나누어 코퍼스 분석에서 추출한 결과를 토대로 번역문에 나타나는 높임법의 특성을 살펴졌다.

2.1. 문법적 높임법

국어의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은 주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주격 조사로 ‘-께서’를 붙이고 서술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를 붙여서 나타낸다. 아래에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께서’와 ‘-(으)시-’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표 1> 주체 높임 표현의 빈도⁷⁾

유형	대우 등급	형태	비번역문		번역문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주격 조사	평칭	-이/가	59,293	99.604	57,219	99.614
	존칭	-께서	236	0.396	222	0.386
	합계		0		0	
선어말어미	존칭	-(으)시-	1,795	0.572	1,471	0.474
용언	전체 용언		313,968		310,532	

위 표를 보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주격 조사 ‘-께서’의 빈도는 비번역문과 번역문이 거의 유사함에 반해 선어말어미 ‘-(으)시-’의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약간 낮다.

객체 높임법은 여격 조사 ‘-께’와 높임 표현의 용언으로 실현된다. 높임 표현의 용언은 어휘적 높임법의 연구 대상이나 객체 높임에서 여격 조사 ‘-께’와 호응하여 나타나므로 편의상 여기서 함께 다루겠다.

최석재는 오미정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고유어 가운데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를 수집한 결과를 바탕으로 15개의 겸양어와 존대어 용언을

7) 표에서 주격 조사의 각 형태에 대한 상대 빈도는 표에서 제시한 주격 조사의 출현 횟수 합계에서 각 형태의 출현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으)시-’의 상대 빈도는 ‘-(으)시-’가 출현 가능한 환경인 전체 용언의 출현 횟수에서 ‘-(으)시-’의 출현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제시하였다⁸⁾. 이 가운데 겸양어가 객체 높임에 사용되는 동사이므로 아래에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께’와 겸양형 동사⁹⁾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표2> 객체 높임 표현의 빈도¹⁰⁾

유형	대우 등급 및 방식	형태	비번역문		번역문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여격 조사	평칭	-에게	4,156	92.644	5,823	94.668
		-한테	261	5.818	235	3.825
		-께	69	1.538	93	1.512
	합계	4,486		6,151		
동사	겸양	뵈다(뵙다)	17		11	
		받잡다	0		0	
		드리다	210		275	
		바치다	77		69	
		사뢰다	0		0	
		아뢰다	1		2	
		여쭙다 (여쭙다)	16		11	
		모시다	89		28	
	합계	410	0.233	396	0.236	
	전체 동사	176,048		167,733		

<표1>과 <표2>에서 객체 높임 표현의 빈도와 주체 높임 격조사의 빈도는 번역

8) 겸양어 : 뵈다(뵙다), 받잡다, 드리다, 바치다, 올리다, 사뢰다, 아뢰다, 여쭙다(여쭙다), 모시다

존대어 : 계시다, 돌아가다, 들다, 자시다, 잡수다(잡수시다), 주무시다

9) 겸양어 가운데 ‘올리다’는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올리다’는 동음이의어라서 의미 분석을 하지 않는 이상 존대어 ‘올리다’를 구분해 내기 어렵다. 참고로 ‘올리다’의 전체 출현횟수는 비번역문이 381회, 번역문이 436회이다.

10) 표에서 여격 조사의 각 형태에 대한 상대 빈도는 표에서 제시한 여격 조사의 출현 횟수 합계에서 각 형태의 출현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고, 객체 높임 표현 동사의 상대 빈도는 전체 동사의 출현 횟수에서 표에 제시한 객체 높임 표현 동사 출현 횟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각 형태별 출현 횟수의 절대적인 수치가 낮아서 각 형태의 상대 빈도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표에 제시하지 않았다.

문과 비번역문 간에 차이가 거의 없고,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으)시’의 상대 빈도만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약간 낮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각각 주어 명사-객어 명사, 주격 조사-여격 조사, 높임 선어말 어미-겸양형 동사를 이용하여 높임을 표현하지만 청자 높임은 화계로써 청자에 대한 높임을 표현한다. 주체 및 객체 높임법과 상대 높임법의 가장 큰 차이는 앞의 두 높임법이 문장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 높임법인 반면, 상대 높임법은 대화 참여자의 측면에서 본 높임법이라는 점이다(최석재 29).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법이다. 상대 높임법은 주로 종결 표현에 의해 실현되며, 높임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나눌 수 있다.

<표3> 상대 높임법의 분류¹¹⁾

격식체	높임 표현		낮춤 표현	
	하십시오체 (아주 높임)	하오체 (예사 높임)	하계체 (예사 낮춤)	해라체 (아주 낮춤)
비격식체	해요체 (두루 높임)		해체 (두루 낮춤)	

다음은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나는 상대 높임 표현 종결어미의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11)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국어 문법 체계를 따랐다.

〈표4〉 상대 높임 표현 종결어미의 빈도¹²⁾¹³⁾

유형	대우 등급	형태	비번역문		번역문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출현 횟수	상대 빈도
격식체	아주 낮춤	-다/ㄴ다/는다	63,214	75.755	61,405	72.825
	예사 낮춤	-네	30	0.478	237	1.927
	예사 높임	-오/소	173	0.207	689	0.817
	아주 높임	-비니다/습니다	4,223	5.061	8,249	9.783
비격식체	두루 낮춤	-아/어	2,498	2.994	1,157	1.372
	두루 높임	-요	3,665	4.392	4,296	5.095
전체 종결 어미			83,445		84,318	

위 표를 보면,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아주 낮춤과 두루 낮춤 종결어미의 상대 빈도는 낮고, 예사 낮춤, 예사 높임, 아주 높임, 두루 높임 종결어미의 상대 빈도는 높다. 이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상대를 대우하여 높이는 화계가 더 많이 사용됨을 의미한다.

2.2. 어휘적 높임법

객체 높임에 쓰이는 ‘드리다, 모시다’ 등과 같은 겸양 동사 외에 높임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어휘 부류는 지시 표현이다. 국어에서 높임 표현과 관련된 지시 표현의 대표적인 예는 인물 대명사이다¹⁴⁾. 인물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에 따라 놓이는 환경에 제한을 받는다. 다음은 대우의 등급에 따른 인물 대명사의 분류표이다.

- 12) 표에서 상대 빈도는 종결 어미 전체의 출현 횟수에서 각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 13) 예사 낮춤의 ‘-네’는 해체 종결 어미와 동음이의어 관계이다. 출현 횟수가 많지 않아 모두 확인하여 구분하였다. ‘-네’가 예사 낮춤 어미로도 쓰이고 두루 낮춤의 어미로도 쓰이는 것처럼 종결 서법에 따른 각 높임 등급의 형태들이 동음이의어인 경우가 많아서 형태 분석의 상태로는 각 대우 등급에 따른 종결 서법 형태별 빈도를 모두 구분하여 비교하기가 어려워 평서형 어미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다만, 예사 높임의 ‘-오/소’, 두루 낮춤의 ‘-아/어’, 두루 높임의 ‘-요’는 명령형, 의문형에도 사용되므로 이들 종결 서법에 쓰인 예도 포함되었다.
- 14) 김정우(9)는 영어의 인칭대명사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 문맥에 따라 호칭어나 지칭어를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언급하면서 호칭어나 지칭어가 경어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경어법 체계를 고려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

<표5> 인물 대명사의 분류

인칭	대우 등급	단수			복수		
1인칭	예사말	나, 내			우리(들)		
	겸사말	저, 제			저희(들)		
2인칭	아주 낮춤	너, 네			너희(들)		
	예사 낮춤	자네			자네들		
	예사 높임	당신, 임자, 그대			당신들, 임자들, 그대들, 여러분		
3인칭 인물	아주 낮춤	애	개	재	애네(들)	개네(들)	재네(들)
	예사 낮춤		그, 그녀		이들	그들	저들
	예사 높임	이이	그이	저이	이이들	그이들	저이들
	아주 높임	이분	그분	저분	이분들	그분들	저분들

위 표는 서정수(1996)의 체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수정하였다. 서정수(1996: 500)는 3인칭 대명사의 아주 낮춤 표현으로 ‘이 애, 그 애, 저 애’를, 아주 높임으로 ‘이 양반, 그 양반, 저 양반’을 들었는데, 이들은 『표준국어대사전』에 단어로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의 분류표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서정수가 예사 높임으로 분류한 ‘이 분, 그 분, 저 분’을 본고에서는 아주 높임으로 분류하였다. 아내가 남편을 지칭할 때 ‘이 이, 그 이’라고는 하지만 ‘그 분’이라고 하지는 않으며, 연세 높으신 어르신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분, 그 분, 저 분’이라고는 하지만 ‘이 이, 그 이, 저 이’라고는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 그 분, 저 분’이 ‘이 이, 그 이, 저 이’보다 대우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번역문과 비번역문에 나타난 인물 대명사의 빈도를 비교한 것이다.

〈표6〉 텍스트 유형별 인물 대명사의 빈도¹⁵⁾

인칭	형태	비번역문		번역문	
		출현 횟수	상대 빈도	출현 횟수	상대 빈도
1인칭	나/내	11,316	29.408	9,697	19.521
	저/제	572	1.487	559	1.125
	우리	3,864	10.042	5,198	10.464
	저희	49	0.127	35	0.070
	합계	15,801	41.064	15,489	31.181
2인칭	너/네/니	1,178	3.061	706	1.421
	자네	49	0.127	203	0.409
	당신	720	1.871	1,529	3.078
	그대	14	0.036	183	0.368
	너희	165	0.429	110	0.221
	여러분	70	0.182	619	1.246
	합계	2,196	5.707	3,350	6.744
3인칭	그 ¹⁶⁾	4,581	11.905	11,737	23.628
	그녀	3,444	8.950	3,245	6.532
	합계	8,025	20.856	14,982	30.160
합계		26,123	67.889	33,974	68.393
대명사 전체		38,479		49,675	

위 표를 보면 인물 대명사의 출현횟수와 상대 빈도 모두 번역문이 더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1, 2, 3인칭 모두 번역문에서 더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 3인칭은 번역문의 빈도가 더 높지만, 1인칭은 번역문의 빈도가 더 낮다¹⁷⁾. 2인칭은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상대 빈도 차이가 1%인 반면, 3인칭은 10%로 그 차가 크다.

15) 표에서 상대 빈도는 비번역문과 번역문 각각의 대명사 전체 수에서 각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이다.

16) 3인칭 대명사 ‘그’는 인물 대명사 및 사물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 모두에 쓰인다. 형태 분석에서는 이 둘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표에 제시된 빈도는 지시 대명사까지 포함되었다.

17) 1인칭에서 출현 횟수는 거의 비슷한 수치지만, 상대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10% 낮다.

2인칭에서 평칭의 ‘너/네/니, 너희’는 번역문의 상대 빈도가 비번역문보다 더 낮고, 존칭의 ‘자네, 당신, 그대, 여러분’은 번역문의 상대 빈도가 더 높다. ‘너/네/니, 너희’의 상대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절반 이하인 반면, ‘당신’의 상대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1.5배, ‘그대’의 상대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10배, ‘여러분’의 상대 빈도는 번역문이 비번역문의 7배에 달한다. 다만, ‘너/네/니’와 ‘당신’ 이외의 2인칭 대명사는 각 형태별 상대 빈도가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수치만으로 텍스트의 특성을 논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2인칭 대명사는 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문학 텍스트에 쓰인 ‘자네’와 ‘그대’, ‘당신’은 대화문에서 화자가 청자를 가리켜 말하는 경우지만, 사실적 텍스트, 특히 전문 텍스트에 쓰인 ‘당신’과 ‘여러분’은 필자가 독자를 가리켜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평칭이 적고 존칭이 많이 쓰이는 것은 청자의 설정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반 글쓰기에서는 필자가 구체적인 대상을 상정하여 글을 쓰기 때문에 화자와 청자의 대우 관계가 명확하게 정해지지만, 번역에서는 번역자가 대상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자가 상정한 대상을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우 관계의 결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미지의 대상에 폭넓게 쓸 수 있는 존칭의 사용이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¹⁸⁾.

비번역문은 1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3인칭 대명사의 빈도보다 2배 높게 나타나지만, 번역문은 1인칭 대명사와 3인칭 대명사의 빈도가 비슷하다.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3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임을 알 수 있다. 3인칭 인물 대명사로는 ‘그’와 ‘그녀’ 외에도 평칭에 ‘애, 개, 재’, 존칭에 ‘이이, 그이, 저 이, 이 분, 그 분, 저 분’ 등이 있다. 이들의 빈도를 조사한 결과 비번역문과 번역문 모두 그 출현횟수가 두 자릿수 이하로 비교에 의미가 없어 위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2인칭 대명사와 마찬가지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낮춤말은 더 적게, 높임말은 더 높게 쓰였다¹⁹⁾.

18)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 선생님의 도움 말씀을 수렴하였다.

19) <표7> 3인칭 인물 대명사의 빈도(출현 횟수)

2.3. 정리

위에서 살펴본 높임 표현의 빈도에서 나타나는 번역문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주체 높임에 쓰이는 주격 조사와 객체 높임에 쓰이는 여격 조사는 그 빈도가 비번역문과 유사하다.

둘째, 비번역문에 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의 쓰임이 적다.

셋째, 상대 높임 표현에서 예사 낮춤 이상의 화계, 즉 상대를 대우하여 높이는 화계의 종결 어미가 많이 쓰인다.

넷째, 지시 표현에서는 3인칭 대명사 ‘그’와 존칭의 2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인다.

그런데, 번역문과 비번역문 간의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빈도 차에 비해 예사 낮춤 이상의 상대 높임 표현 종결어미의 빈도 차가 훨씬 크다. 따라서 비번역문에 대조되는 번역문의 높임 표현상의 특징은 화계로 실현되는 상대 높임과 지시 표현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화계와 지시 표현의 쓰임을 중심으로 번역문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사용 양상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높임 표현의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겠다.

3. 번역문에 나타난 높임 표현의 분석

2장에서 우리는 형태 분석 코퍼스에 기반하여 번역문의 높임 표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으로 상대 높임 표현에서 상대를 대우하여 높이는 화계의 종결

대우 등급	형태	비번역문	번역문
아주 낮춤	애	45	21
	개	33	18
	재	16	9
예사 높임	이이	2	2
	그이	3	38
	저이	0	1
아주 높임	이분	5	15
	그분	42	74
	저분	0	2

어미가 많이 쓰인다는 점과 지시 표현에서 3인칭 대명사 ‘그’와 존칭의 2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인다는 점을 들었다. 본 장에서는 화계와 지시 표현이 번역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고, 번역에서 높임 표현을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도록 한다.

3.1. 상대 높임의 화계

높임법 가운데 번역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은 상대 높임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은 각각 주어 명사와 객어 명사가 문장에 드러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높임 표현 형태소를 선택할 수 있지만, 상대 높임은 담화 상황에서 담화 참여자의 관계를 분석하여 그 담화 상황에 맞는 화계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화계(話階)란 높임과 관련하여 청자를 상대로 하는 화자의 문체상의 등급, 즉 화자의 문체에서 실현되는 상대 높임의 등급이다. 화계는 서술체에서 독자를 청자로 하는 필자의 화계와 대화체에서 등장인물의 화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상대 높임은 화계에 의해 청자에 대한 높임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상대 높임의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계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번역 과정에서 번역자는 독자를 청자로 하는 필자의 화계를 우선 결정하게 된다. 국내 출판 서적을 살펴본 결과, 비번역 텍스트 가운데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는 해요체가 대부분이었다. 본격적으로 높임법을 배우게 되는 유치부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에는 ‘-습니다’로 대표되는 하십시오체도 많이 쓰이는데, 고정적이지 않고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넘나든다.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부터는 하라체²⁰⁾가 주로 쓰인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텍스트의 번역에서 독자의 연령에 따른 이러한 분류를 참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성인을 독자로 하는 텍스트는 텍스트의 유형에 따라 서술체의 화계가 달리 사용된다. 전문 텍스트 유형에는 하라체가 쓰이지만, 문학 텍스트나 일반 교양 텍스트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다른 화계가 선택되는데, 어른을 위한 동화나 독백체의 글, 편지 형식의 글에서는 하십시오체도 나

20) 하라체는 청자가 특정 개인이 아닐 때 낮춤과 높임이 중화된 느낌을 주는 종결형의 말체이다. 독자를 청자로 하는 글말의 문체로 쓰인다.

타난다. 따라서 성인 대상의 텍스트라고 해서 하라체로만 번역하기보다 텍스트의 유형과 성격에 따라 서술체의 화계를 달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대화체에서 화계를 선택할 때는 화자와 청자의 연령, 성별, 사회적 지위, 힘(power), 친밀도, 제3자의 성격과 참여 여부 등을 고려하게 된다²¹⁾. 다음 예를 보자.

(1)

[ST] ... who said: 'Good morrow, fair maiden, whither away so fast?'
'Aged father,' says she, 'I am going to seek my fortune.'

[TT] 노인은 공주를 보자 말을 걸어왔습니다.

“안녕, 아름다운 처녀여? 어디를 그렇게 부지런히 가는 길인가?”
“할아버지, 저는 성공의 길을 찾아 집을 나왔답니다.” (영국 옛이야기, 254)

위 예는 공주와 노인 간의 대화다. 노인이 연장자임을 고려하여 공주의 발화를 하십시오체로 표현했다. 노인의 발화는 하계체로 표현하였는데, 상대가 공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처음 만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므로 노인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처녀에게 낮추어 말하되, 어느 정도 격식을 갖추고 대우하는 하계체를 선택한 것이다. 화자와 청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노인이 공주에게 “안녕, 아름다운 아가씨? 어디를 그렇게 부지런히 가는 길이지?”와 같이 두루 낮춤의 해체로 표현할 수도 있다. 해체가 쓰일 수 있는 위와 같은 담화 상황에서 해체가 아닌 하계체가 쓰인 것은 2장에서 본 바와 같이 상대 높임 표현에서 예사 낮춤 이상의 화계, 즉 상대를 대우하여 높이는 화계의 종결 어미가 많이 쓰인다는 번역문의 특징을 반영한다. 특히, 2.1의 <표4>에서는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예사 낮춤의 하계체 종결 어미의 상대 빈도가 5배나 높게 나타났다.

다음 예도 마찬가지다.

(2)

[ST] With these she went the same road as her sister; and coming near

21) 박영순, 유송영, 이정복, 엄경옥, 이경우 등 참조.

the cave, the old man said; 'Young woman, whither so fast?'
 'What's that to you?' said she.

[TT] 꼬추 공주는 이렇게 많은 짐을 갖추고 이복 자매가 갔던 길을 갔습
 니다. 동굴 근처에 이르자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젊은 아가씨, 어디를 그렇게 급히 가는 길이오?”
 “당신이 알아서 뭐 하려고?” (영국 옛이야기 256-257)

위 예도 화자와 청자의 연령상 노인이 꼬추 공주에게 해체를 쓸 수 있는 상황
 이지만, 예사 높임인 하오체가 쓰였다. 이 예문 역시 2.1의 <표4>에서 번역문이
 비번역문보다 예사 높임의 하오체 종결 어미의 상대 빈도가 4배 높게 나타난
 번역문의 특성을 반영한다.

대화 참가자의 연령이나 사회적 지위가 대화체의 화계를 결정하는 데에 중
 요한 고려 사항이 되지만, 화계의 결정에서 그보다 더 우선하는 요소는 높임에
 대한 화자의 의도이다. 위 예문의 텍스트에서 꼬추 공주는 버릇없고 이기적인
 아가씨다. 그래서 번역자는 꼬추 공주에게 말을 거는 할아버지에 대한 꼬추 공
 주의 대답에 ‘해체’를 썼다. 버릇없고 건방진 꼬추 공주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
 다.

상대 높임의 등급을 선택함에 있어 높임의 의도에 우선하는 요소는 친밀감
 이다. 다음은 화계의 결정에 친밀도가 영향을 미친 예이다.

(3)

a. [ST] ... my worried mother tucked me into the backseat of her car
 and clucked the entire way home.

[TT] 근심에 찬 엄마는 나를 자동차 뒷좌석에 잘 앉히고는 집으로 오
 는 내내 혀를 찧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1 25)

b. [ST] "Thanks, Mom. Does that mean you're proud enough of me to
 buy me an apartment, furniture, and a whole new wardrobe?"

[TT] “고마워, 엄마. 나한테 아파트랑 가구랑 새 옷장을 사줘도 될 만
 큼 내가 자랑스러운 거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1 59)

c. [ST] "Um, Dad? Hi, it's Andy. Guess where I am now? Yes, of course

I'm at work, ..."

[TT] “아, 아빠? 저 앤디예요. 제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네, 물론 근
무중이죠. ...”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1 91)

위 예에서 주인공 앤디는 어머니에게는 해체를, 아버지에게는 해요체를 쓴다. 이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언어 관습을 잘 반영한 예이다. 최근에는 유아동 시기에 부모님께 해체를 쓰다가 사춘기를 지나고 성인이 되면서 어머니에게는 해체를 유지하는 반면 아버지에게는 높임말을 쓰는 경향이 짙다²²⁾. 성인이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화계에 변화를 주는 이유는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우하는 데에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고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를 대우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해체는 친밀감의 표현이다.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 더 강한 친밀감을 느끼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동년배나 선후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화자보다 연장자라도 허물없이 친한 사이에서는 해체를 쓰고, 나이가 어리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높임말을 쓴다. 그러므로 위 (3b)에서 앤디가 엄마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이유는 (2)에서 꼬추 공주가 노인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이유와 다르다. (3b)에서 앤디가 엄마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것은 높임의 의도가 없어서, 즉 높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번역은 높임 표현과 관련한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담화 관습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번역의 과정에서 화계를 잘못 선택한 예를 살펴보자.

(4)

[ST] Once again, I made the round of calls, but this time Miranda's
nanny picked up on the second ring.

"Cara, hey, it's me."

"Hey, what's up? Are you on the street? It sounds so loud."

"Yeah, you could say that. I had to pick up Miranda's Porsche from
the dealership. Only, I can't really drive stick. But now she called and

22) 이경우는 드라마 대본의 발화 내용 조사에 근거하여 가까운 가족일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높은 사람에게 쓸 수 없는 ‘-해/-해라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밝혔다.

wants me to pick up someone named Madelaine and drop her off at the apartment. Who the hell is Madelaine and where she be?"

[TT1]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 보모가 받았다.

“카라, 안녕. 나야.”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운전중인가요? 무척 시끄러운데요?”

“응, 미란다의 포르세를 카센터에서 찾아야 했거든. 스틱 운전은 정말 짱인데 말이야. 게다가 방금 미란다가 전화했어. 매들린이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놓으라고. 대체 매들린이 누구야?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알아?” (악마는 프라다를 읽는다 15)

위 원문에 나타난 대화문의 문장만으로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두 인물의 관계를 알 수 없어서 등장인물의 화계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위 예문의 담화 상황을 분석하면, 대화 참여자는 주인공 앤디와 카라이다. 앤디는 미란다의 잡무를 처리하는 어시스턴트이고 카라는 미란다 집에서 일하는 보모이므로 직위상 누가 누구에게 하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앤디는 대학을 갓 졸업한 새내기 사원이기 때문에 보모 일을 하는 카라보다 나이가 훨씬 많다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앤디가 카라에게 반말을 사용할 만큼 친밀한 관계일까? 원문에 ‘hey’, ‘Who the hell ~’ 등의 표현이 사용된 것을 보면, 원문에서 앤디는 카라에게 격식을 갖추지 않고 편하게 말을 하며, 두 사람이 어느 정도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앤디와 카라가 서로 두루 낮춤의 해체를 사용하거나 서로 두루 높임의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업무상 통화가 잦긴 하지만 아직 안면도 없고 전화로만 인사한 사이이므로 해체를 사용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래서 위 예문에서는 두 사람이 서로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이 담화 상황에 가장 어울릴 듯하다. ‘hey’, ‘Who the hell is ~’ 등의 표현을 사용할 정도의 친밀한 관계라면 아래와 같이 해체를 적절히 섞어서 쓸 수 있을 것이다.

(4)

[TT2] 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 번 울리자 보모가 받았다.

“안녕하세요? 앤디예요.”

“무슨 일이에요? 아직도 운전중인가요? 무척 시끄러운데?”

“네, 편집장님의 포르세를 카센터에서 찾아야 했거든요. 스틱 운전은 정말 평인데. 게다가 방금 편집장님이 전화했어요. 매들린이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다놓으라고. 대체 매들린이 누구죠?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또 다른 예를 살펴보자.

(5)

[ST]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farmer and his wife who had one daughter, and she was courted by a gentleman.

...

"Whatever are you three doing, sitting there crying, and letting the beer run all over the doing, sitting there crying, and letting the beer run all over the floor?"

...

'I've travelled many miles, and I never met three such big sillies as you three before; and now I shall start out on my travels again, and when I can find three bigger sillies than you three, then I'll come back and marry your daughter.'

[TT] 옛날 옛적에 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의 외동딸이 어느 신사로부터 청혼을 받았습시다.

...

“아니 거기 앉아서 뭐하고 있는 겁니까? 맥주는 이렇게 온 사방으로 흘러 넘치게 둔 채 왜 울고 있는 거죠?”

...

“이제까지 수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당신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소. 나는 이제부터 여행을 시작하겠소. 당신들보다 더 멍청한 바보를 셋이나 발견한다면 그때 다시 돌아와 당신 딸과 결혼하겠소.”

(영국 옛이야기 23-25)

위 번역문의 첫 번째 대화에서 신사는 장차 장인, 장모가 될 사람들에게 하십시 오체와 해오체를 썼지만, 두 번째 대화에서는 하오체를 쓰고 있다. 예비 장인, 장모라면 아주 높임의 담화 상황이다. 신사와 농부라는 계층의 차이가 있다 하

더라도 예비 장인 장모에게 하오체를 쓰는 것은 우리의 문화와 담화 관습에 맞지 않다.

일반적으로 화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상황에 따라 그 등급이 위아래로 넘나드는 스위칭(switching)의 특성을 보인다²³⁾. 위 예에서 신사는 예비 장인, 장모에게 하십시오체, 해요체, 하오체의 세 가지 화계를 사용하고 있다. 해요체는 비격식체의 두루 높이는 등급이므로 우리말 대화에서 흔히 다른 화계와 함께 사용하지만²⁴⁾, 하십시오체와 하오체는 격식체로서 그 대우 등급과 대상이 다르므로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다음은 화계 변동의 전략이 효과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6)

[ST] "... I know you've had such a long week, and, knowing you, I figured you hadn't bothered to eat yet, so I brought the food to you."

...

"You did not! How'd you know that I was sitting here this very second, wondering how I was going to motivate to find food? I was about to give up."

"So come here and eat!" He looked pleased and pulled open the bag.

[TT] "... 일주일 동안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널 잘 알지. 아직 식사도 못 했을 거야. 그래서 먹을 걸 좀 가져왔어."

...

"웬일이니! 그렇잖아도 먹을 걸 좀 사러 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들을까 하며 앉아 있었어. 예라 관두자, 하던 참이었는데."

"그럼 어서 드시지요!"

23) 화계 변동 양상에 대한 연구로는 유송영, 이정복, 김의수, 최석재 등이 있다. 특히 최석재(79)은 드라마 대본을 분석하여 단일 화계를 사용하는 경우와 이중 화계를 사용하는 경우가 3:7의 비율로 나타남을 보였다.

24) 최석재(75-78)가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화계 변동 양상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해요체는 해라체에서부터 하십시오체에 이르기까지 모든 화계와 변동하여 나타난다.

그는 뿌듯해하면서 봉투를 열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1
129-130)

위 예는 주인공인 앤디와 남자친구와의 대화로, 남자친구가 바쁜 회사 생활로 힘들어하는 앤디를 위해 먹을거리를 사 온 장면이다. 해체를 쓰다가 앤디가 기뻐하며 반기자 “그럼 어서 드시지요”와 같이 하십시오체로 바꾸었다. 화계의 변화 없이 “그럼 어서 먹어”로 표현하는 것에 비해, 장난스러우면서도 연인에 대한 사랑과 배려가 묻어나서 더 정감이 간다.

(7)

[ST] "Mrs. Myers was picking Erika up from the same train, so she just dropped me off. When are we eating? I'm satrving."

"Now. Do you want to clean up? We can wait. You look a little ragged from the train. You know, it's fine if-"

"Mother!" I shot her a warning look.

[TT] “에리카랑 같은 기차를 탔어요. 마이어 부인이 에리카를 데리러 나와서 그 차를 같이 타고 왔어요. 엄마, 밥은 언제 먹어요? 나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줄게. 일단 좀 씻을래? 기다릴 수 있어? 기차 타고 와서 그런지 지쳐 보이는구나. 씻고 싶으면……”

“엄마 그만 좀 험!”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1 134)

위 예는 뉴욕에서 직장을 다니는 앤디가 오랜만에 시골집에 가서 엄마와 대화하는 상황이다. 배고파 죽겠다고 밥을 찾는 앤디에게 엄마가 씻으라고 하자 그동안 높임말을 쓰던 앤디가 해체로 화계를 바꿈으로써 해요체를 쓰는 것보다 엄마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더 생생하게 그려진다.

(8)

[ST] So he hummed and ha'd and at last, 'Come, my good man,' said he,

'You see what poor folk we are; how can we manage to pay you fifty pounds? Will you not take twenty? When all is said and done, 'twill be good pay for the trouble you've taken.'

'Fifty pounds was what I bargained for,' said the Piper shortly; 'and if I were you I'd pay it quickly. For I can pipe many kinds of tunes, as folk sometimes find to their cost.'

'Would you threaten us, you strolling vagabond?'

[TT] 결국 시장은 몇 번 헛기침을 한 후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이보게, 젊은이!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 마을은 가난하다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자네에게 50파운드씩 줄 수 있겠나? 20파운드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자네가 한 일에 비하면 20파운드도 잘 받는 걸세.”

“내가 계약한 금액은 정확히 50파운드였소. 내가 당신이라면 지금 빨리 지불할 것이오. 나는 다양한 곡조를 피리로 불 수 있으므로 내게 약속한 돈을 주지 않으면 당신들은 그 대가를 치를 것이오.”

“뭐라고, 지금 우리를 협박하는 거야? 떠돌이 부랑아 주제에?” (영국 옛이야기 262-263)

위 예는 피리 부는 사나이에게 마을의 쥐를 없애 주면 50파운드를 사례하겠다고 시장이 막상 마을의 쥐가 모두 없어지자 태도가 돌변하는 상황이다. 시장이 처음에는 피리 부는 젊은이에게 하계체를 쓰다가 나중에는 태도가 돌변하여 해체를 쓴다. 하계체로 존대를 하는 것보다 해체로 화계를 바꿈으로 해서 시장의 이중적이며 알파하고 이기적인 속내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담화 상황에 따라 화계를 적절히 바꾸는 것은 정서적 의미(affective meaning)²⁵⁾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음은 김정우(2006b 173)에 인용된 예이다.

(9)

- a. [TT] 자, 가요. 이런 데 하루 종일 앉아 있어 봐야 소용이 없어. 밖은 쟁쟁 해가 빛나고, 오늘밤은 파티가 있잖아.
- b. [TT] 그럼, 꼭 와 주게. 자네는 내 친구이고 똑같은 사제끼리니까, 자네를 제일 먼저 생각해냈어.

25) 리치(G. N. Leech, 9-23)의 7가지 의미 분류 가운데 하나로, 청자 및 화제에 대한 태도 등이 포함된 화자의 개인적 감정이 반영되는 것을 말한다.

김정우(2006b 173)는 위 두 예문에 대해 (9a)는 해요체 어미와 해체 어미가 혼용되어 자연스럽지 못하고, (9b)는 하계체 어미와 해체 어미가 혼용되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그러나 위 예문은 서술문이 아니라 대화문이다. 우리말의 일상 대화에서 스위칭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번역문에서도 구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담화 상황에 따라 화계를 적절히 변화시키면 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문이 될 것이다.

화계를 선택할 때에는 대화 참가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되, 성별, 힘(power), 화자의 성격, 제3자의 성격과 참여 여부, 높임의 의도, 화·청자 간의 친밀도와 같은 화용론적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하고 담화 상황에 맞게 화계를 적절히 변화시켜 정서적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한다.

3.2. 높임법과 지시 표현

상대 높임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의 주된 논의 대상은 높임과 관련하여 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화자의 문체상의 등급, 즉 화계(話階)였다. 그러나 상대 높임은 문법적 요소인 종결어미뿐 아니라 호칭과 인물 대명사와 같은 어휘 요소로도 실현이 된다. 지시 대명사를 비롯한 호칭의 사용은 비단 상대 높임만의 문체가 아니라 주체 높임 및 객체 높임 모두에 걸치는 문제다.

1인칭 대명사와 2인칭 대명사는 담화 상황에서 화자와 청자를 가리키는 직시(deixis)적 표현이다. 제3의 인물을 가리킬 때는 ‘그’나 ‘그녀’를 쓰지만 이는 문어에서만 허용될 뿐이고, 구어에서는 이름이나 직함, 혹은 관형사 ‘이, 그, 자’에 ‘사람’과 같은 일반 명사를 결합하여 사용한다.

2.2의 <표6>에서 우리는 번역문이 비번역문에 비해 2인칭 대명사 ‘당신’의 쓰임이 많은 것을 보았다. 2인칭 대명사 ‘당신’은 화자가 청자를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번역문에서는 ‘you’의 상투적인 번역에 나타난다. 필자가 독자를 가리켜 말할 때도 ‘당신’으로 번역하며, 대화문에서 예사 높임 이상의 화계를 써야 하는 상황일 때 흔히 ‘당신’으로 번역한다. 2인칭 대명사 ‘당신’은 부부 사이나 약간의 순위 사람,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의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며, 선생, 부모, 상사와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쓰지 않는다(서정

수 498). 그러나 번역문에는 ‘당신’의 이러한 분포 제약을 어긴 경우가 많이 보인다. 다음 예를 보자.

(10)

a. [TT]

나는 어느 전국적 조직의 사업가 단체의 모임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나는 의욕으로 충만한 한 젊은 강연가와 잡담을 하였다. 그는 나에게 “당신은 강연가로서의 일을 몇 해쯤 계속하고 계십니까?”하고 물었다. (노만V.필_삶의꿈이렇게실현하라.txt)

b. [TT] 사랑하는 어머니.

이 편지를 쓰기 위해 새로 편지지를 샀습니다.

...

그러면 내일 다시 쓰겠습니다. 키스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앙트완 (생텍쥐페리_어머니에게사랑을.txt)

위 (10a)에서 대화의 담화 상황을 분석하면, 화자는 젊은 강연자이고 청자는 화자보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많은 전문 강연자이며, 두 사람은 강연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한 초면의 관계이므로 화자가 청자에게 아주 높임의 대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예사 높임 표현인 ‘당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높임법과 관련한 우리의 담화 관습에 맞지 않다. 문장의 주어가 청자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해도 되고, 주어를 쓰려고 한다면 청자가 강연자이므로 ‘선생님께서서’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²⁶⁾. (10b)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글의 일부이다. 이 편지 모음집에는 보내는 이에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앙트완’ 외에도 ‘사랑스러운 당신의 아들 앙트완’, ‘당신의 사랑스러운 아들 앙트완’, ‘당신을 사랑하는 아들 앙트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아들 앙트완’ ‘사랑스러운 아들 앙트완’, ‘어머니를 사랑하는 앙트완’ 등의 표현이 쓰였다. 부모를 청자로 할 때는 2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고 친족관계어인 ‘아버지’, ‘어머니’를 사용하므로 여기서는 ‘어머니’가 적합하다.

26) ‘선생님’은 ‘남자 어른을 높여 부르는 말’(『표준국어대사전』)로도 쓰인다.

다음으로 호칭을 살펴보자. 인칭 대명사 외에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여러 호칭들도 높임을 실현하는 어휘들이다. 국어의 호칭으로는 언니, 오빠, 형, 누나,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등과 같이 친족 관계어에서 파생된 어휘나 선생님, 사장님, 과장님과 같은 직함이 주로 쓰인다. 다음 예를 보자.

(11)

[ST] Childe Rowland was just going to raise it to his lips, when he looked at his sister and remembered why he had come all that way. So he dashed the bowl to the ground, and said: 'Not a sup will I swallow, nor a bite will I bite, till Burd Ellen is set free.'

[TT] 막내 로울랜드가 먹을 것을 막 집어들려는 순간 누나를 보고는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외쳤습니다.

“버드 엘렌이 풀려날 때까지는 물 한 방울, 빵 한 조각 먹지 않을 것이다.” (영국 옛이야기 144-145)

버드 엘렌은 로울랜드의 누나이다. 우리말에서는 손위 형제를 가리킬 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친족관계어인 ‘형, 누나, 오빠, 언니’등을 사용하므로 위 예문의 ‘버드 엘렌’은 ‘누나’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담화 관습에 맞는 표현이다. 영어에서는 화자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낮은 사람이거나 간에 고유명사를 쓸 수 있지만 국어에서는 화자보다 높은 사람일 경우에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인칭대명사도 마찬가지이다. 2인칭 대명사는 아주 높임의 어휘가 없으므로 청자가 아주 높임의 대상일 때는 대명사 대신 호칭어를 사용한다. 앞서 살핀 (10)의 예가 그러하다.

인칭대명사나 호칭과 같은 인물에 대한 지시 표현을 선택할 때에는 화계를 고려하여 대명사와 고유명사, 친족어, 직함 등을 담화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국어의 담화 관습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4. 결론

본고는 대규모의 형태 분석 코퍼스에 기반하여 번역문과 비번역문을 비교함으로써 높임 표현의 형태별 빈도에 근거하여 번역문에 나타나는 높임 표현의 특성을 밝히고, 번역문에 쓰인 높임 표현을 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고에서 밝힌 번역문의 높임 표현상의 특징은 비번역문에 비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으)시’의 쓰임은 적고, 상대 높임 표현에서 예사 낮춤 이상의 화계, 즉 상대를 대우하여 높이는 화계의 종결 어미가 많이 쓰이며, 높임과 관련한 지시 표현에서는 3인칭 대명사 ‘그’와 존칭의 2인칭 대명사가 많이 쓰이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번역문의 특성에 따라 화계 및 지시 표현과 관련하여 번역문에 나타난 높임 표현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높임 표현의 번역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상대 높임의 화계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감탄형, 청유형의 각 종결 서법에 따라 다양한 종결어미로 실현된다. 그러나 동일한 형태가 복수의 화계에서 복수의 종결 서법에 쓰이기 때문에 형태 분석만으로는 그 정확한 용법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평서형 어미를 중심으로 상대 높임의 각 대우 등급에 따른 높임 표현의 빈도를 제시하는 데에 그쳤다.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형태 분석 코퍼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번역문의 높임 표현상의 특징은 상대 높임에서 드러나는바, 각 종결어미에 대해 대우 등급과 종결 서법을 구분하는 의미 분석 작업을 형태 분석에 추가한다면 상대 높임과 관련한 번역문의 특성을 좀 더 자세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문에서 높임 표현을 논의하면서 지시 표현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는데, 지시 표현은 대응과 더불어 하나의 담화·화용론적 주제로 삼기에 충분하다. 또한 비번역문과 번역문의 형태 분석 코퍼스를 대상으로 각 형태별 빈도를 비교하면 비번역문을 기준으로 할 때 번역문이 갖는 언어적 특징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해당 형태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번역문이 갖는 표현상의 언어적 문제를 파악해 낸다면, 번역에서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번역 전략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종합적인 고찰과 논의에 대해서는 후고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강희숙. 2002.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10:1. 1-24. 한국사회언어학회.
- 김의수. 2002. 「청자 대우법 문말어미 교체의 허가 원리 연구」, 『언어학』 31. 31-52. 한국언어학회.
- 김일환. 2009. 「텍스트 유형에 대한 코퍼스 언어학적 분석(1): 사실적 텍스트와 상상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집. 732-747.
- 김재민. 1998. 「경어법 사용의 세대 간 차이에 관한 사회언어학적 연구」, 『언어학』 6:2. 337-357. 대한언어학회.
- 김정우. 1994. 『영어-한국어 번역의 언어학적 연구』.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2006. 『영어 번역 AtoZ(아토즈)』. 서울: 동양문고.
- 남성우. 2006. 『통번역의 이해와 수행』. 서울: 한국문화사.
- 박영순. 1976. 「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국어국문학』 72·73. 47-65. 국어국문학회.
- 서남희 옮김. 2006.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파주: 문학동네. (Lauren Weisberger. 2003. *The Devil Wears Prada*. The Curtis Brown UK.)
- 서미석 옮김. 2005. 『영국 옛이야기』. 고양: 현대지성사.(Joseph Jacobs. 1890. *English fairy tales*.)
- 서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출판원.
- 안동환 옮김. 2008. 『코퍼스기반 번역학 : 이론, 연구결과, 응용』. 서울: 동인. (Laviosa, Sara. 2002. *Corpus-based Translation Studies: Theory, Findings, Applications*. Radopi.)
- 엄경옥. 2002. 「현대국어 청자대우법 화계에 대한 고찰」, 『어문론집』 30. 79-98. 중앙어문학회.
- 오미정. 2005. 「한국어의 존재 어휘 연구-고유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27. 225-248. 한국어학회.
- 유송영. 1994. 「국어 청자 대우법에서의 힘(power)과 유대(solidarity) (1)-불특정 청자 대우를 중심으로」, 『국어학』 24. 291-317. 국어학회.

- 유송영. 1996. 『국어 청자 대우 어미의 교체 사용(switching)과 청자 대우법 체계: 힘(power)과 유대(solidarity)의 정도성에 의한 담화 분석적 접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우. 2001.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2)」. 『국어교육』 106. 143-174. 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3. 「국어 경어법 변화에 대한 연구 (1)」. 『국어교육』 110. 269-300. 한국어교육학회.
- _____. 2004. 「현대국어 경어법의 사회언어학적 연구 (3)」. 『국어교육』 113. 545-587. 한국어교육학회.
- 이관규. 2002. 『학교문법론』(개정판). 서울: 월인.
- 이근희. 2008. 『번역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서울: 한국문화사.
- 이맹성. 1975. 「한국어 종결어미와 대인관계요소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1)」. 『인문과학』 33 · 34. 263-289. 인문과학연구소.
- 이석규 외 5인 공저. 2002. 『우리말답게 번역하기』. 서울: 역락.
- 이정복. 1994. 「제3자 경어법 사용에 나타나나 참여자 효과 연구」. 『국어학』 24. 353-384. 국어학회.
- 이정복. 1996. 「국어 경어법의 말 단계 변동 현상」. 『사회언어학』 4:1. 51-81. 한국사회언어학회.
- _____. 2001. 『국어 경어법 사용의 전략적 특성』. 서울: 태학사.
- 정 광. 1995. 「국어사 자료의 전산화와 말모듬(corpus)」. 『태릉어문연구』 5 · 6. 325-348. 서울여대 국어국문학회.
- 정연일 · 남원준 옮김. 2006. 『번역학 입문-이론과 적용』.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Jeremy Munday. 2000. *Introduction Translation Studies*. London: Routledge.)
- 정호정. 2003. 「코퍼스 중심의 번역학연구」. 『번역학연구』 4:2. 71-88. 한국번역학회.
- 정희자. 1999. 『담화와 문법』. 서울: 한신문화사.
- 최석재. 2008. 『국어 대우법의 정보화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적륜. 1976. 「한국어 대우법의 사회언어학적 기술-그 형식화의 가능성」. 『언어와 언어학』 4. 115-124. 한국외국어대학 언어연구소.

[Abstract]

**A study on the honorific expression in translated texts on the basis of
the morph-tagged corpus**

Kim, Hyeyoung
(Korea University)

This paper tries to construct a morph-tagged corpus of a million words sized for non-translated and translated texts respectively, and to explic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translated texts by comparing the two types of texts based on this corpus.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explicated by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use of the subject honorific pre-final ending '-si-' is less frequent than in the non-translated texts; in the expressions of the hearer honorification, the final endings in the speech level with which the speaker treats the hearer politely are frequently; in the referential expressions related to honorification, the third person pronoun 'ku' and the honorific second person pronoun are used frequently. I have analyzed the honorific expressions in the translated texts on the side of linguistics with respect to the speech levels and referential expressions in accordance with such characteristics.

Comparing the frequencies of each morph from the morph-tagged corpus of the translated and non-translated texts, we can find out that the linguistic characteristics of the former with the latter as the criterion. Thus, if we discover linguistic problems with the translated texts on the side of the target language by analyzing the usages of the relevant morphs on the basis of the corpus, it helps to set up a translational strategy for effective expression of the target language in translation.

▶ Key Words: morph-tagged corpus, Comparable Corpus, honorific expression, speech level, referential expression,

<부록1> 100만 어절 번역 텍스트 형태 분석 균형 코퍼스 목록

텍스트 유형	파일명	역자	출판 연도	출판사	어절 수
문학	엘시E.비그니_희망의아이들.txt	전덕애	1991	영문	11,743
문학	칼릴지브란_떠도는자에게길은아름답 다.txt	이수민	1991	서연	5,542
문학	O.헨리_꼭두각시인형.txt	서계인	1992	지문사	5,375
문학	그레이엄그린_키호테신부.txt	박정근	1992	하늘땅	5,349
문학	로자문드펠처_조개줍는아이들I.txt	구자명	1992	김영사	10,519
문학	루디야드키플링_히말라야의새.txt	류시화	1992	불일	10,120
문학	마이클웰던_조지오웰-감춰진얼굴.txt	김기애	1992	성운	5,370
문학	비버리클리어리_오렌지향은바람을타 고.txt	양준희	1992	미래향 문화	5,373
문학	안드레이벨리_은빛비둘기I.txt	박혜경·윤 효진	1992	제3문학사	9,993
문학	이바슈키에비치_수녀요안나.txt	박영	1992	춘원문화사	7,591
문학	이반투르게네프의_쓰고달콤한사랑이 야기.txt	김종갑	1992	들녘	10,238
문학	헨리크생키에비치_크미치스I.txt	김귀화	1992	대성	11,838
문학	d.h.로렌스_채털리부인의사랑(3판).txt	김동선	1993	포에버북스	25,464
문학	나탈리베비트_트리갯의샘물.txt	최순희	1993	대교	5,345
문학	나탈리베비트_트리갯의샘물.txt	최순희	1993	대교	5,345
문학	다니엘디포_로빈슨크루소.하.txt	최인자	1993	문학세계사	11,790
문학	단프랑크_이별.txt	김응권	1993	해냄	8,997
문학	마르그라트뒤라스_연인의약속.txt	명희진	1993	청맥	8,329
문학	세르잔느골롱_앙젤리크의왕(상).txt	김소영	1993	여울	9,897
문학	스베카카사티모디니아니_줄리아.txt	송경은	1993	생각하는 백성	9,746
문학	엔타일러_종이시계.txt	장영희	1993	동문사	5,401
문학	코넬리아텐분_비밀의방.txt	고광자	1993	바울서신사	12,079
문학	움베르토에코_장미의이름상 (개역판21쇄).txt	이윤기	1994	열린책들	24,438
문학	조나단스위프트_걸리버여행기.txt	신현철	1995	문학수첩	27,189
문학	펠릭_대지.txt	이강빈	1995	홍신문화사	29,212
문학	폴오스터_미스터버티고.txt	황보석	1995	열린책들	24,738
문학	합계				301,676

아동	요해베드세갈_우화탈무드.txt	최현	1991	하서	6,216
아동	헨포드_이습전집.txt	유종호	1991	민음사	4,770
아동	베레취_물리나라여행기.txt	나라사랑 편집부	1992	나라사랑	5,339
아동	생텍쥐페리_어머니에게사랑을.txt	김진욱	1992	서연	5,505
아동	헤르만헤세_의자와의대화.txt	신현철	1992	책나무	5,376
아동	벤자민호프_아기곰이깨달은작은이야기. txt	이혜경	1993	청아	5,602
아동	파브르_곤충기1(신기한쇠똥구리).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356
아동	파브르_곤충기2(용감한사냥벌).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373
아동	파브르_곤충기3(매미노래의비밀).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382
아동	파브르_곤충기4(전갈의결투).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402
아동	파브르_곤충기5(거위벌레의요람).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412
아동	파브르_곤충기6(남가뢰의비밀).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357
아동	파브르_곤충기7(개미와파리).txt	이종은	1993	고려원	5,347
아동	파브르_곤충기8(곤충시인의생애).txt	이종은	1993	고려원	3,483
아동	리자테츠너_365일동화.txt	서선역	1994	디자인하우스	4,844
아동	하퍼리_앵무새죽이기(23판).txt	박경민	1994	한겨레	21,703
아동	합계				100,467
일반교양	M.엘리아데_종교의의미- 물음과답변.txt	박규태	1991	서광사	9,605
일반교양	노만V.필_삶의꿈이렇게실현하라.txt	김진욱	1991	문학사상사	5,359
일반교양	메리윈_TV를끄자.txt	서영숙· 최윤라	1992	서원	10,797
일반교양	볼프강쇼이블레_나는어떻게통일을홍정 했나.txt	한우창	1992	동아일보사	10,601
일반교양	슈발트저_ 일등과꼴찌는공부방법차이Ⅱ.txt	김기중	1992	키	7,917
일반교양	콘라트로렌츠_솔로몬왕의반지.txt	김천혜	1992	문장	10,615
일반교양	크리슈나무르티_삶과지성에대하여.txt	이윤기	1992	학원사	10,412
일반교양	B.러셀_일반인을위한철학.txt	최광열	1993	집문당	11,557
일반교양	L.A.크뤼로프_ 러시아과라독스세상읽기.txt	방인원	1993	생각하는 백성	6,726
일반교양	도널드윌튼_당신은의사전달을어떻게하 고계십니까.txt	유경열	1993	평민사	5,062
일반교양	앤밴크로프트_ 20세기의신비사상가들.txt	양역관	1993	정신세계사	8,793

일반교양	에드가모랭.안느브리지트케롤_지구는우리의조국.txt	이재형	1993	문예	9,812
일반교양	윌리엄페즐러_이미지콘트롤.txt	정한택	1993	하서	11,624
일반교양	이바스피터슨_진리의섬.txt	윤만식	1993	웅진	8,386
일반교양	존스킬리_성공신화(상).txt	천희상	1993	청년사	12,045
일반교양	진카퍼_약이되는먹거리.txt	안덕균	1993	까치	11,104
일반교양	파울프리아우어_세계풍속사.상.txt	이윤기	1993	까치	10,628
일반교양	프랭크기브니_일어서는나라주저않는나라.txt	권순택 외	1993	동아일보사	11,716
일반교양	프리츠반델_학교가환자를만드는가.txt	권이중	1993	교보문고	13,049
일반교양	휴W.셀츠버그_화학의발자취-원시인에서과학자로.txt	고문주	1993	범양사	8,543
일반교양	A.셋클리프_(재미있는)이야기과학사.txt	황국산	1994	예문당	5,113
일반교양	그라시아라로슈푸코_세상을비추는거울.txt	을지출판사 편집부	1994	을지	4,988
일반교양	도널드R._동물은무엇을생각하는가.txt	안신숙	1994	정신세계사	5,108
일반교양	도널데이부리스_상식속의상식.txt	박명숙	1994	장락	31,859
일반교양	랜드럼B.세틀즈_아들.딸가려놓는비결.txt	한성희	1994	국일문화사	8,721
일반교양	마르크페로_새로운세계사.txt	박광순	1994	범우사	5,066
일반교양	모리스클라인_지식의추구와수학.txt	김경화	1994	이화여대출판부	5,129
일반교양	스콧.터로우_세계최상급대학생들의슬기로운대학생활.txt		1994	자유지성사	5,068
일반교양	스티븐M.펠만_디즈니와놀이문화의혁명.txt	박석희	1994	일신사	5,058
일반교양	아널드J.토인비_세계명저100선내일의전망.txt	김기덕	1994	민성사	5,130
일반교양	앨런바너.칼슨웨이드_물과건강.txt	송철복	1994	장락	5,120
일반교양	엘리자베스마살토마스_개들의숨겨진삶.txt	박주연	1994	홍익	5,144
일반교양	조제프나이_21세기미국과워.txt	박노웅	1994	한국경제신문사	11,320
일반교양	캐롤라인.버어드_이상적인대학인상후회없는대학생활.txt	김종윤	1994	자유지성사	5,088
일반교양	합계				302,263

전문_자연과학	베렐만_생활속의물리학II.txt	이용태	1990	이성과현실	5,407
전문_자연과학	A.셋클리프_에피소드과학사(화학 이야기).txt	조경철	1991	우신사	5,356
전문_자연과학	A.아인슈타인,L.인펠트_물리이야기.txt	지동섭	1991	한울	11,027
전문_자연과학	V.M.딜만_생체세계	김정기	1991	밝은세상	5,393
전문_자연과학	헤롤드로슨_유리의물성과응용.txt	김철영	1991	대광문화사	9,273
전문_자연과학	A.아인슈타인_상대성이론.txt	김종오	1992	미래사	7,944
전문_자연과학	L.파인만_물리법칙의특성.txt	나성호	1992	미래사	10,073
전문_자연과학	아이작아시모프_아시모프의생물학2.txt	김영수	1992	웅진문화	10,170
전문_자연과학	아이작아시모프_아시모프의천문학.txt		1992	웅진문화	9,695
전문_자연과학	제임스리브록_가이아의시대-살아있는우리지구의전기.txt	홍옥희	1992	범양사	13,362
전문_자연과학	크리스토퍼월스_유전자의지혜.txt	권오욱	1992	범양사	11,616
전문_자연과학	A.셋클리프의_에피소드과학사(물리 이야기).txt		1993	우신사	5,438
전문_자연과학	A.셋클리프의_에피소드과학사(생물의학이야기).txt	조경철	1993	우신사	5,373
전문_자연과학	S.C.조단_요약심장학.txt	고려의학 편집부	1993	고려의학	6,884
전문_자연과학	Y.네이먼.Y.커시_소림자를찾아서.txt	신현준	1993	미래사	10,739
전문_자연과학	스티븐호킹_시간의역사.txt	현정준	1993	삼성	9,120
전문_자연과학	스티븐와인버그_아원자입자의발견.txt	박배식	1994	민음사	5,039
전문_자연과학	윌리엄H.쇼어_생명과우주의신비.txt	과학세대	1994	예음	5,118
전문_자연과학	조지스무트,기테이비슨_우주의역사.txt	과학세대	1994	까치글방	5,226
전문_자연과학	합계				152,253
전문_인문사회	니콜라이하르트만_헤겔철학개념과정신현상학.txt	박만준	1990	천지	10,043
전문_인문사회	양리파을_산업및일반경영관리론.txt	김홍길	1990	지문사	8,360

전문_인문사회	J.O.엄슨_분석철학.txt	이한구	1992	종로서적	13,302
전문_인문사회	로버트화이트헤드_아동문학교육론.txt	신헌재	1992	범우사	8,578
전문_인문사회	로트만_러시아기호학의이해.txt	김희숙 외	1993	민음사	9,109
전문_인문사회	백타가르트_헤겔변증법의쟁점들.txt	이종철	1993	고려원	12,835
전문_인문사회	셜리M.호드외_교육과정혁신.txt	김경자	1993	교육과학사	9,089
전문_인문사회	아르투리히_경제윤리 I .txt	강원돈	1993	한국신학연구소	12,474
전문_인문사회	페이스R.엘리엇_가족사회학.txt	안병철 외	1993	을유문화사	12,439
전문_인문사회	E.H.카_역사란무엇인가.txt	권오석	1994	홍신문화사	20,090
전문_인문사회	엘빈도플러_제3의물결.tx	원창업	1994	홍신문화사	32,846
전문_인문사회	프레드M.프로후_공공정책론.txt	조선일	1996	범문사	5,155
전문_인문사회	합계				154,320
전체 합계					1,010,979

<부록2> 100만 어절 비번역 텍스트 형태 분석 균형 코퍼스 목록

텍스트 유형	도서명	저자	출판연도	출판사	어절 수
문학	가깝고 먼 길	김지수	1992	월간문학	6,196
문학	계절풍	김춘복	1991	한길사	3,749
문학	그리운 흔적	이윤기	2000	문학사상사	30,360
문학	나비, 봄을 만나다	차현숙	1997	문학동네	48,543
문학	마이너리그	은희경	2001	창비	45,073
문학	식물들의 사생활	이승우	2000	문학동네	49,169
문학	어떤 서울 사람	구인환	1992	문학사상사	4,987
문학	이사 가던 날	이오덕엮음	1991	창비	22,219
문학	그대의 차가운 손	한강	2002	문학과 지성사	52,698
문학	날마다 축제	강영숙	2004	창비	38,899
문학	합계				301,893
아동	다영이의 이슬람 여행 : 세계사에서 숨은그림찾기	정다영	2003	창비	22,265
아동	노마의 발견	어린이 철학교육연구소	1998	해냄	18,597
아동	먼나라 이웃나라	이원복	1995	고려원	29,355

이동	쉽고 재미있는 수학세계	안재규	1990	일월서각	8,910
이동	하늘에 뜬 돌도끼	손동인	1989	창비	22,790
이동	합계				101,917
일반교양	유재현의 역사 문화기행: 베콩의 슬픈 그림자. 인도차이나	유재현	2003	창비	50,799
일반교양	고객과 경쟁하라	박낙원	2002	북21	40,983
일반교양	여성 시대에는 남자도 화장을 한다	최재천	2003	궁리 출판	25,029
일반교양	서른다섯, 행복한 도전자들	김광주	2004	북21	28,073
일반교양	이재규 교수의 재미있는 기업이야기	이재규	1999	21세기북스	42,294
일반교양	삶의 걸 살림의 걸	김원일	1993	세계사	46,476
일반교양	영화 사랑 영화예술 그리고 우리들의 영화 이야기	안병섭	1993	신영미디어	5,376
일반교양	일본인과 한국인의 의식구조	김용운	1990	한길사	46,444
일반교양	일본경제 - 초일류의 현장	송희영	1993	조선일보사	7,262
일반교양	CD-ROM으로 보는 이규태 코너	이규태	1993	솔빛미디어, 조선일보사	7,587
일반교양	합계				300,323
전문_인문사회	심리학개론	곽기상	1991	재동문화사	21,813
전문_인문사회	언론과 부정부패	정대철· 김재범· 김동민	1995	집문당	15,313
전문_인문사회	언어와 사상 - 언어와 문화	고려대 국어편찬 실	1994	고려대학교 출판부	14,328
전문_인문사회	우리 학문의 길	조동일	1993	지식산업사	61,175
전문_인문사회	인간과 사회-전통윤리와 현대풍조의 갈림길에서	김유혁	1996	신양사	11,499
전문_인문사회	한국 시민사회와 지식인	주성수	2002	아르케	27,000
전문_인문사회	합계				151,128
전문_자연과학	과학혁명-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 ²⁷⁾	김영식	2001	아르케	31,648
전문_자연과학	호스피스·완화의학	최윤선	2000	고려대학교 출판부	21,853
전문_자연과학	임상신경학-총론	이대희	2003	고려대학교 출판부	75,871
전문_자연과학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인간배아복제, 유전형질전환에 관한 논쟁	김훈기	2004	궁리출판	28,520
전문_자연과학	합계				157,892
	전체 합계				1,013,153

27) 김영식의 『과학혁명』은 두 종류가 있다. 21세기 세종계획의 결과보고서 및 해당 형태 분석 말뭉치의 헤더에는 『과학혁명-근대과학의 출현과 그 배경』(1984. 민음사)으

로 표기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과학혁명-전통적 관점과 새로운 관점』(2001. 아르케)이어서 수정하였다.

<부록3> 100만 어절 번역 텍스트 형태 분석 코퍼스의 일부

그가	그/NP + 가/JKS
말한	말/NNG + 하/XSV + ㄴ/ETM
것이	것/NNB + 이/JKS
사실이라면	사실/NNG + 이/VCP + 라면/EC
더	더/MAG
이상의	이상/NNG + 의/JKG
저항은	저항/NNG + 은/JX
미친	미치/VV + ㄴ/ETM
것이였다.	짓/NNG + 이/VCP + 었/EP + 다/EF + .SF
귀족들은	귀족/NNG + 들/XSN + 은/JX
손을	손/NNG + 을/JKO
들어	들/VV + 어/EC
자신들의	자신/NNG + 들/XSN + 의/JKG
눈을	눈/NNG + 을/JKO
가렸으며	가리/VV + 었/EP + 으며/EC
수도승들은	수도승/NNG + 들/XSN + 은/JX
입고	입/VV + 고/EC
있는	있/VX + 는/ETM
웃을	웃/NNG + 을/JKO
머리위에까지	머리/NNG + 위/NNG + 예/JKB + 까지/JX
끌어당겨	끌어당기/VV + 어/EC
덮었다.	덮/VV + 었/EP + 다/EF + .SF

김혜영

고려대학교 국어소통능력연구센터

cojump@empal.com

관심분야: 번역이론, 번역교육

논문투고일: 2008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08년 11월 29일

게재확정일: 2008년 12월 10일